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조경희*

요 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관리 현황과 사고발생의 사례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8년 이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발표된 어린이집 안전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안전관리와 사고의 현황을 구분하여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사례들을 공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의 공간별 안전관리와 차량과 실내공기 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안전사고는 교직원과 영유아의 부주의나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로 구분지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부처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융합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지원과 안전관리의 지표를 세부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안전관리, 안전사고

논문제출일 : 2015. 4. 15

최종심사일 : 2015. 5. 12

게재확정일 : 2015. 5. 27

*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o, Kyung Hee, Dept. of Social Welfare, Chung Cheong University, 38 Walgok-ro, Gangnae-meon Hungduk-gu, Chungju-si, Chungbuk, Korea. E-mail: hanul-sam@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에 의한 영유아 사망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교통사고 익사 및 추락사 등의 사고사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 데이터뉴스에 의하면 2010년 어린이 사망자 1,888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망원인의 1위가 32.0%로 안전사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우리나라는 OECD가입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아동상해가 많고 사망률이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홍길희, 2003).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률(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사망수)을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OECD국가가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평균 5.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7명으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표 1>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 OECD국가 비교(1-14세)

구분	OECD평균	1위	2위	3위
2005년	5.6명	멕시코(13.6명)	미국(9.2명)	한국(8.7명)

출처: 통계청(2009).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이러한 영유아기의 사고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도가 경중여부를 떠나서라도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치료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거나 이후 삶의 큰 변화와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한국 소비자원(2015)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고 건수가 <표 2>와 같이 3년 연속 증가하였다고 한다.

<표 2> 최근 4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20,732	22,907	24,312	27,381
증가율	-	↑ 10.5	↑ 6.1	↑ 12.6

출처: 한국소비자원(2015). 어린이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보도자료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 3~5세 누리과정운영과 무상보육정책 등으로 기관이용률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대부분 12시간 종일제 보육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가정의 안전 못지않게 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관리원칙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2011),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영유아교직원,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원장 및 교사가 매일의 현장점검을 실시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고 시설물 관리와 보험가입 등의 관리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에서의 어린이 방치나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화장실에서의 영아 화상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이 안전지대인가라는 학부모의 우려와 기관에서의 영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로 사고현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개선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요사례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문헌의 검색 및 수집절차

어린이집 안전에 관련한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수집과정을 거쳤다. 대부분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사례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축소하여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회를 통해 사고보고 및 처리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기관의 사고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발표된 사고현황및 사례자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등에서 발표된 어린이집 안전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 논문자료들과 함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문헌의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안전관리와 사고의 현황을 구분하여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사례들을 공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마다 각각의 사례를 기초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수의 안전사고를 이해하고 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관리방안과 개선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를 파악하여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III.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현황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비롯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는 70%이상 가정에서 사고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활동시간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터라 어린이집에 가정이상의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요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환경 안전

이재연등(2004)의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맞는 가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현관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절반에 불과하였으며 날카로운 물건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절반(54%)에 그쳐 이에 대한 설비와 주의가 요구된다.

2. 조리실안전

조리실의 경우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주방열기구 근처 영유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56%에 불과하며 주방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재연등, 2004)

평가인증지표에서도 영유아를 데리고 조리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영유아들이 물을 먹기 위해 조리실을 드나드는 등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조리실공간을 이동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놀잇감 안전

실내 놀잇감의 안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안전한 놀잇감을 사용하고 있으며 놀잇감의 위치도 영유아의 신체크기를 고려해 영유아가 꺼내고 수납하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잇감에 먼지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 등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영아용 놀잇감 중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의 경우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해야 하나 놀잇감을 상대적으로 자주 세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역할영역의 화장품들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4.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위험한 물건을 보관시에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식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 특히 스테이플러, 칼날있는 커터기, 목공용본드나 물고기 사료등은 영유아가 직접 활동자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물건들이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함에도 교실환경내 유아들이 상시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학영역의 경우 식물 관찰자료로 가시가 있는 선인장등을 부모들이 보내준 자원임을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5. 차량 안전

가능한 등하원용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학버스의 경우, 이재연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46.7%가 신고필증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급상자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차량의 경우 36개월미만의 영아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영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을 몇 번에 걸쳐 오전 오후로 운행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보호장구를

매회 설치해체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차량수송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보호장구 장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뿐아니라 차량의 안전을 위한 장비설치에도 미흡한 내용이 많다. 윤선화(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점멸등도 앞·뒤 모두 부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한 차량은 23.9%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판의 설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설치한 차량은 17%로 차량의 안전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운행시 영아는 물론 동승자인 성인교사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영유아의 차량지도시 벨트를 수시로 착용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의 안전벨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2012년 강화되어 운전자와 운영자가 모두 안전교육을 연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차량운행일지에 영유아의 탑승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차량운행시의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통학버스의 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스쿨존의 확대가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쿨존의 설치와 지자제의 노력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의 적극적 설치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6. 석면안전 및 실내공기질 안전

영유아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위생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 특히 석면관리의 내용은 2012년 4월 신설된 내용으로 오래된 영유아시설들의 석면조사 및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7.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정도

응급상황발생시 준비정도에서 비상시에 교사들의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은 시설이 많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모든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김경희, 2003).

미국과 호주는 영유아시설에는 심폐소생이나 응급처치가 가능한 교사가 1명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임양미, 2011). 하지만 국내의 영유아 시설의 경우 남혜영(2001)연구에 의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수적으로도 적으며 응급처치의 경우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없다'라고 답해 사고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및 자격강화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V.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자료 및 안전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령별 연령별, 성별 안전사고현황

안전공제회자료(2011)에 따르면 접수된 2,340건 사고 중 만 2-3세가 전체사고의 약 47%를 차지하며 성별현황을 살펴볼 때, 남아의 사고건수는 총 1,473건으로 전체사고의 약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보다 활동량과 움직임이 많은 남아가 안전사고의 노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사고의 연령별 성별 차이는 대상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내해준다. 특히 <표 3>과 같이 만 2-3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달적 특징과 대비가 필요하다.

<표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연령별 발생빈도

나이	빈도(건)	백분율(%)
0세	45	1.2
1세	394	10.3
2세	798	20.8
3세	941	24.5
4세	728	19.0
5세	553	14.4
6세이상	381	9.9
계	3,840	100.0

출처: 백혜리(2012).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한국모자보건학회.

2.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여성가족부 (2007)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는 매년 3,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어린이집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사고유형									
	총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 스	기타
2004	3,003	1,480	1,048	92	63	38	35	3	27	217
2005	3,161	1,481	1,207	98	67	43	60	2	47	156
2006	3,716	1,227	1,306	111	108	43	58	1	45	817

출처: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 안전 심층조사연구.

<표 5> e-보육상의 어린이집 사고유형별 안전사고현황

단위 :건

연도	사고유형									
	총계	부딪힘	넘어짐	화상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식중독/급 식	통학 버스승하차	기타
2008	1,335	477	356	35	35	36	29	11	32	323

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2008).

e보육상 집계된 자료도 <표 5>와 같이 교구장 모서리 부딪힘이나 아이들끼리 충돌, 미끄럼틀놀이에서 부딪힘 사고 등 영유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부딪힘 안전사고가 영유아 특성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관에서 그들의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에 대한 예방교육과 환경요인을 제거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3. 사고 장소별 안전사고 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의 조사에 의하면 안전사고발생은 주로 보육실(21.3%)과 실외놀이터(18.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외 복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실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역시 여전히 많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교실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인식과 보육실의 공간면적의 적절성과 놀이자료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점검하는 안전지표를 상세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6>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소별 안전사고현황

단위:건(%)

구분	보육실	교재 교구실	복도	화장실	유희실	식당	실내 기타	놀이터	운동장	도로	차량	소계
사고 빈도	44 (21.3)	10 (4.8)	26 (12.6)	7 (3.4)	35 (17.0)	14 (6.8)	2(1.1)	38 (18.4)	3 (1.4)	9 (4.4)	18 (8.7)	206 (100)

4. 사고원인별 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

채종옥외(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의 사례수집결과 안전사고의 약 70% 이상이 영유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간 다툼도 영유아의 원인에 둔다면 90%가 영유아에 의한 안전사고로 볼 수 있다.

<표 7> e-보육에서의 보육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단위: 건(%)

총계	영유아부주의	아동간 다툼	교직원의 부주의	시설물하자
1,335(100)	949(71.1)	141(10.6)	49(3.7)	8(3.7)

출처: 중앙보육정보센터(2008).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 사고의 70% 이상이 영유아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다음이 종사자 부주의와 시설물 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안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전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고취시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끊임 없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직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을 높은 곳에 놓거나 전시하고 놀잇감선정시 안전을 고려하지 않거나 파손된 놀잇감을 보완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요소가 있는 요인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종옥외 2008).

사례1. 신발장위의 사진을 보려고 올라가 매달리다가 신발장에 깔림

사례2. 볼풀장 안에 있는 못에 긁힘

사례3. 뜨거운 글루건 액이 떨어져 화상을 입음

2) 영아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높은 곳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동,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이동행동, 위험한 장난, 조심성 없는 행동,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 행동, 이물질흡입 등이 있다.

사례1. 견학시 손잡고 가다 넘어짐

사례2. 자신의 옷의 구슬을 귀에 넣음

사례3. 교실에서 뛰다가 넘어짐

3) 시설물하자

보육실의 높은 문턱과 좁은 공간으로 인한 사고, 계단, 화장실등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넘어짐 놀이기구의 돌출된 부분에 긁히거나 걸려 넘어짐 등의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사례1. 교사용 바퀴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려 부딪힘

사례2. 교실문턱에 걸려 넘어짐

V. 논의 및 제언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사고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한 결과, 영유아가 갖는 자기중심적 특성과 신체조절의 미숙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다양한 공간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보육환경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실내 공간 및 실외공간의 안전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며 조리실 등의 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교직원들의 안전관리 수칙의 매뉴얼화가 요구된다.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이나 놀잇감과 놀이기구 등의 KC마크제품의 사용은 물론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안전한 환경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안전관리는 보육교직원의 실천적 안전관리의 실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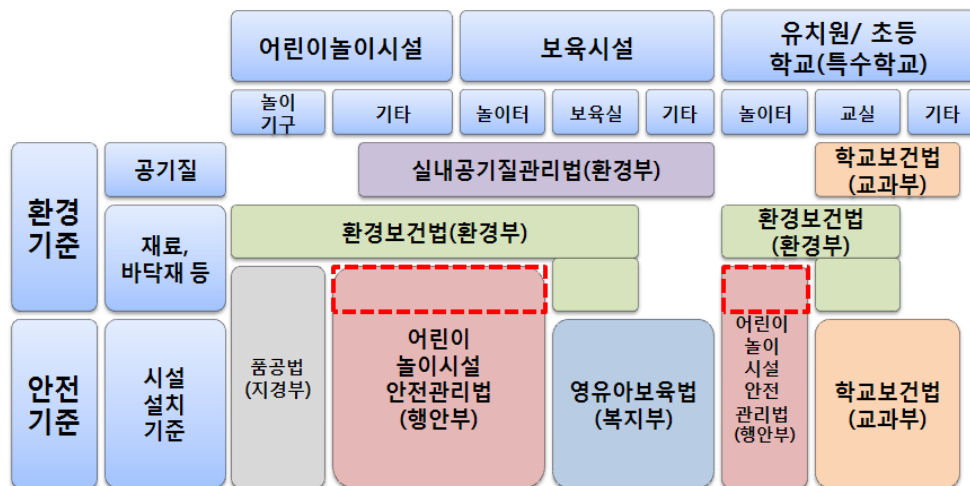
도 중요한 인적환경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마련이 필요

참여정부시 ‘어린이 안전원년’ 5개년 선포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이끌어 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범정부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이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여 2008년에는 전년대비 7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안전본부, 2009).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종합대책과 실행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융합행정 도모로 내실있는 안전관리 강화



(그림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체계([red dashed box] 는 중복을 의미)

출처: 행안부(2012).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추진계획.

이처럼 영유아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 복지부, 교과부, 환경부의 4개 부처가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각 기관의 안전관리 협조로 영유아시설을 안전관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융합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증대

영유아 시설들에게 요구되는 안전기준들이 초기 설립시부터 마련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중에 각 부처에서 시달되는 기준들을 적용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지난 몇해동안은 방염에 대한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방염커튼과 방염카펫 그리고 투척용소화기의 구비에 영유아시설들이 예산확보로 힘겨워했으며 이후 놀이터 안전설치검사로 어린이집이 예기치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물을 갖추느라 막대한 예산을 소요시켰다. 이후 비상재해 대피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전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에 대한 부적합성을 언급하며 비상계단과 철재용 미끄럼틀을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실로 현장에서는 버거운 과정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설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집행은 그러한 기준의 요구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석면관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전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4. 지도점검의 내실화와 자율 안전관리 지표를 세부화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안심보육을 위해 기존의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공공형에서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충한 내용의 안심보육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영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안전한 보육과정운영을 하는데 교사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보육교직원의 실천적 교육내용의 구성 및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반영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각 시도정보센터관할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1인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박미희(2011), 남혜경(2001), 김해미(2007)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대부분 영유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 및 발표 실습중심의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집의 사고예방을 위해 취업하기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응급처치교육이수자를 취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단위의 집합교육에서 토론 및 실습이 가능한 소규모의 교육이 한국생활연합의 부모안전교육과 같이 상시 교육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6. 영유아와 부모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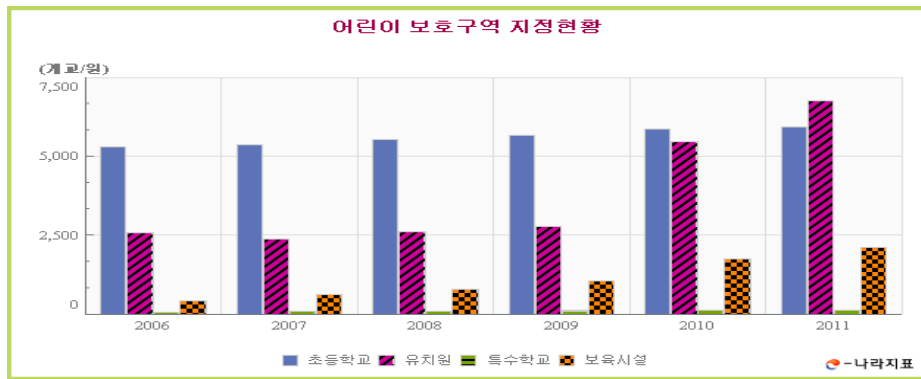
만2세~3세가 전체 사고의 약4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각 지역의 보육교직원의 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인형극으로 찾아가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안전교육의 매체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반가운 일이 되었다. 영유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므로 부모안전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실제적인 실습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이해하고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어린이 스쿨존 확대

지난 해 5월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992년

1,084명 ⇒ 2011년 8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 126명⇒2011년 80명으로37%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시행령, 2011.1.1 시행), 통학버스 광각후사경 부착(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1. 12. 1 시행)의 무화, 보조교사 미탑승 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시 안전 확인의무 신설(도로교통법, 2011.12.9. 시행) 등의 제도를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경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스쿨존의 경우 영 유아시설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비정도가 차이가 많았다. 보육시설이 4배나 많은 것에 비하면 어린이집 스쿨존의 확대가 보다 관심있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그림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출처: 경찰청(2012).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참 고 문 헌

- 경찰청(2012).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 김경희(2003).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연구:서울시 4개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미(2007).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경기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해경(2001).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희(2011).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의 영아안전사고 경험에 따른 교사의 사고관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2012).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5, 135-151.
- 보건복지부(1996). 중앙보육위원회 회의자료. 미간행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 소방방재청(2008).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서울: 소방방재청
- 소비자안전센터(2007).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2009).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위해정보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 여성가족부(2007). 보육시설 안전 심층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윤선화(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한국위기관리논집, 9(2), 73-94.
- 이재연 외(2004). 보육시설 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보고서
- 임양미(2011). 경기도 영아 안심보육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정책보고서
- 채혜선외 (2008). 보육시설 안전 매뉴얼연구. 중앙보육정보센터
- 통계청(2009)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2011)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정보분석.
- 한국소비자원(2015). 어린이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보도자료
- 행안부(2012). 5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강화 보도자료.
- 행안부(2012).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추진계획. 보도자료.
- 홍길희(200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환경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동남 보건대학 논문집, 21(2), 283-306.
- data news(2011). 어린이 사망원인1위, ‘안전사고’.

Abstract

A Study of Safety Management and Accident Cases in Day-care Center

Cho, Kyung-Hee*

This study is to examine safety management and accident cases in day-care centers. Since 2008, it analyzed the safety data reports of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parating the divided state of safety management and accident, it was summarized and categorized each case by a spa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re is need for safety control in indoor air quality, car, and each space of the child care center. Safety accidents are usually caused by defects in facilities and carelessness of children and teachers.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supporting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efficiently. Moreover, there is need for budget support and strong safety education.

Key Words : safety accident, safety management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 Cheong University